

영어 랩부터 합창·연극까지 학인 스피치 대회 '눈길'

조계종, 15일 첫 학인 외국어 스피치 대회 예선

학인 스님들의 외국어 실력에 한 번 놀라고, 회색 장삼 속에 숨어 있는 재기 넘치는 '끼'에 다시 한 번 놀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9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개최한 '제1회 학인 외국어 스피치 대회' 예선을 개최했다.

개인과 단체팀 총 166명이 참여한 예선에서 학인 스님들은 랩과 연극, 합창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외국어 실력을 뽐냈다.

이날 예선에서 눈길을 끌었던 것은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영어 단체 경연, 동국대 서울캠퍼스 1팀은 발우공양 절차를 영어로 차분히 설명했다.

2팀은 'SHOW ME THE BUDDHA'라는 주제로 영어 랩배틀을 펼쳤다. 한 학인 스님이 가운데에서 제대로 된 비트 박스를 넣고 '붓다 크루'와 '달마 크루' 양 팀이 나와 불교 교리를 서로 랩으로 설명해 대중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동학사 승가대학은 '탐·진·치'를 주제로 영어 연극을 진행했다. 학인 스님들의 영어 실력이 깔끔한 구성과 호연으로 더욱 두드러졌다. 2팀이 참가한 봉녕사 승가대학 역시 무상 등의 주제를 토크와 합창 등으로 재미있게 풀어냈다.

27명이라는 최대 인원이 참여한 운문사 승가대학의 경연은 한편의 예술 공연이라 보아도 무방할 정도였다. 초반에는 마임과 현대무용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표현하고, 후반부는 '자비상' 합창이 장엄하게 이어졌다.

예선 심사 결과 개인 13명(중국어 2명, 일본어 2명, 영어 10명)과 단체부 6명(영어 5명, 중국어 1명)이 최종 결선에 진출하게 됐다. 지난해 열불대회에 이어 이번 외국어 스피치 대회도 사미니

스님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실제 개인 부문은 9명의 사미니 스님이, 단체 부문은 운문사, 봉녕사 등 4팀이 결선에 진출했다.

교육원은 발표와 연출 등을 별도로 교육해 결선에서는 더욱 완벽한 내용을 선보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국장 진광 스님은 "리허설 등을 통해 참가팀들의 내용을 보완했다. 결선 진출자들에게도 P.T, 무대 연출 등을 전문 교육을 진행하려 한다"면서 "한달 뒤에서 있을 결선에서는 완성도 높은 경연을 대중들에게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단체 총166명 참가해 경연

랩·연극 통해 외국어 실력 뽐내

개인 13명 단체 6팀 결선 진출

운문사·청암사 등 사미니 '강세'

내용 보완, 오는 10월 14일 결선

한편, '제1회 학인 외국어 스피치 경연대회' 결선은 오는 10월 14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열린다.

대상인 총무원장상 개인 1명과 단체부 1팀에 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최우수상인 교육원장상 개인 2명과 단체부 1팀에 150만원의 상금을, 우수상 개인 2명과 단체부 2팀에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예선 참가자 전원에게도 장려상이 수여된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교육원은 9월 15일 제1회 학인 외국어 스피치 대회 예선전을 개최했다. 사진은 운문사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의 단체 경연 모습. 최대 인원이 27명이 참여했다.

전국 비구니회 차기 회장 선거 '본격화'

열린비구니모임, 육문 스님 후보 추대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의 차기 회장 선출이 선거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비구니모임(이하 열린비구니)과 전국비구니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정상화비대위)는 9월 16일 군위 법주사에서 '전국비구니회 제11대 회장 육문 스님 후보 선포식 및 추대위원회 회의'를 열고 육문 스님(군위 법주사 주지·사진)을 추대했다.

앞서 육문스님후보추대위원회는 법주사 설선당에서 회의를 열고 전국비구니회 제11대 회장 후보에 육문스님을 추대기로 만장일치 결의했다.

열린비구니 측 후보로 추대된 육문 스님은 추대 수락사를 통해 "그동안 비구니는 화합을 잘 해 왔지만 최근 화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비구니는 무엇보다 첫째도 화합, 둘째도 화합"이라며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비구니회를 끌어갈 힘을 보태는데 노력할 것을 여러분과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날 육문 스님은 '전국비구니회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다'는 슬로건 아

래 △일하는 전국비구니회 △비구니승단 위상과 권익 향상 △비구니 스님 노후복지 △비구니승가교육 지원, 인재 육성 △청정 수행자 자세로 승가 화합 등을 공약했다. 선거운동 조직도 구성됐다. 육문스님선

16일 군위 법주사에서 추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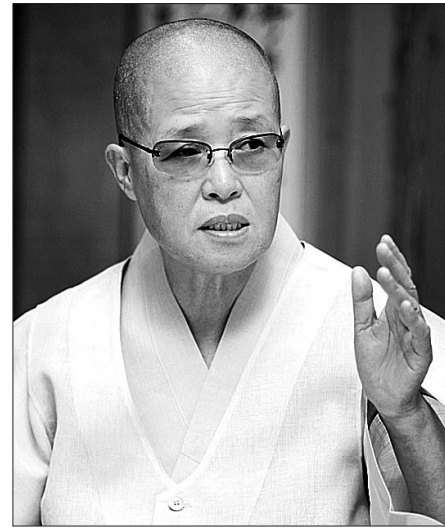
'일하는 비구니회' 공약 발표

육문 스님 '화합이 가장 중요'

연대선원 자민 스님도 한마평

10월 12일 회장 선출 총회

거대핵분부장은 임대 스님이 맡았으며, 비구니계 원로인 경희·명성·경순·법운·대인·묘관·정륜·경심·수현·재희·자광·보각·적조 스님을 증명으로 모셨다. 고문으로는 윤달·지문·법홍·지우·성우·정수·묘정·순행·정성·만



오·남석·대련·상영·상훈 스님이 위촉됐다. 지역선거대책위 수석위원장은 법륜 스님이, 사무총괄위원장은 진명 스님이 맡았다. 실무기구로 기획·조직·재무·홍보·총무·법무대의협력팀을 구성했다. 육문 스님은 1962년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973년 충북 속리산 법주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또한 1969년 경북 양진암에서 수선안거 이래 25안거를 성만했다. 제11대 중앙총회회원을 역임해 종단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종법령 정비 등에 앞장섰으며,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비구니선원 선문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대한불교조계종 선원수좌복지회 이사를 맡아 수좌들의 수행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열린비구니 등이 먼저 후보를 추대·발표함에 따라 전국비구니회 현 집행부 측의 후보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 집행부는 차기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 방침으로 알려졌다. 천안 연대선원 자민 스님이 한마평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육문 스님 선대본의 진명 스님은 16일 추대식 경과보고를 통해 "현 집행부 측에서 자민 스님을 후보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우)는 제11대 회장을 선출하는 제8차 임시총회를 10월 12일 오후 1시 전국비구니회관에서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회장 후보자 자격은 연령 65세, 승남 40세 이상 명덕 법계를 품수해야 한다. 회장 임후보자는 수행이력서 1통(경력포함), 10명의 추천서(소정양식), 승적증명서를 구비해 10월2일 오후5시까지 접수해야 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역 포교·승려 복지에 최선을 다할 것"

자승 스님, 17일 봉선사 주지 일관 스님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9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봉선사 주지 일관 스님(사진)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포교와 신행만으로도 운영되는 모범사제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일관 스님은 "무엇보다 포교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며 "봉선사 문중의 노스님들이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복지기금을 만들어 승려복지에도 전력하

려한다"고 밝혔다. 임명식 이후 일관 스님은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기금으로 아름다운 동행에 2천만 원을 전달했다.

한편, 일관 스님은 일관 스님을 은사로 1979년 해인사에서 수계(사미계) 했으며, 보현사, 불암사 주지, 포교원 포교부장, 제 14, 15대 중앙총회회원을 역임했다.

신성민 기자



자승 스님, '청년희망펀드' 2000만원 쾌척

종교계에선 1호로 기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9월 17일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희망펀드'에 2000만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종교계 1호 기부자다.

자승 스님은 "취업난으로 인해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계종은 "조계종은 불교계 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을 통해 청년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활동과 템플스테이 등을 꾸준히 펼쳐왔으며 자승 스님은 평소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대한 종교계의 역할을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9월16일 '청년희망펀드' 조성을 제안하고 2000만원을 일시 기부했다.

신성민 기자

템플스테이에 불교 양서 보급 나선다

문화사업단·불출협, 17일 MOU 체결... 출판 활성화 기대

템플스테이에 마음을 살피는 양서(良書)들이 보급된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과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지홍)는 9월 17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보현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전국 110여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의 도서문화 관련 프로그램과 행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교출판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주기적·지속적 교류에 서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 스님은 "전국 110여 곳의 사찰에서 연간 38만 명이

템플스테이를 체험한다"면서 "이번 협약이 계기로 추천받은 양서를 템플스테이에 비치해 참가자들이 불교를 더 쉽게 알고 가고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출판문화협회장 지홍 스님(불광사 회주)은 "비불자, 젊은층, 외국인의 참여가 높은 템플스테이에 양서를 제공·홍보하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더 풍부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진화 스님, 지홍 스님을 비롯해 부회장 윤창화 민족사 대표, 사무국장 이승순 민족사 부장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과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지홍)는 9월 17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보현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임후보 등록 및 임시총회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임후보 등록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에서는 제11대 회장 선출을 위하여 회장 임후보자 등록을 받고자 하오니 아래의 임후보자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① 수행이력서 1통 (경력포함)
 - ② 10명의 추천서 (소정양식)
www.kbiguni.org 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 ③ 승 적 증 명 서
- 임후보마감일 : 2015년 10월 2일 17:00시 (도착분에 한함)
- 문 의 : 02)3411-8103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임시총회

전국비구니회 회칙 제4장 11조에 의거, 제8차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국의 비구니스님들께서는 금번 총회에 적극 참여하시어 비구니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기여해 주실 역량 있는 회장 선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회일자 : 2015년 10월 12일 (월요일) 오후 1시
 - 장 소 : 전국비구니회관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31길 56)
 - 준 비 물 : 가사, 장삼, 승려증
 - 문 의 : 전국비구니회관 총무소 ☎ 02)-3411-8103
- ※ 총회 참석시 승려증을 필히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지참시 선거에 참여하실수 없습니다.)